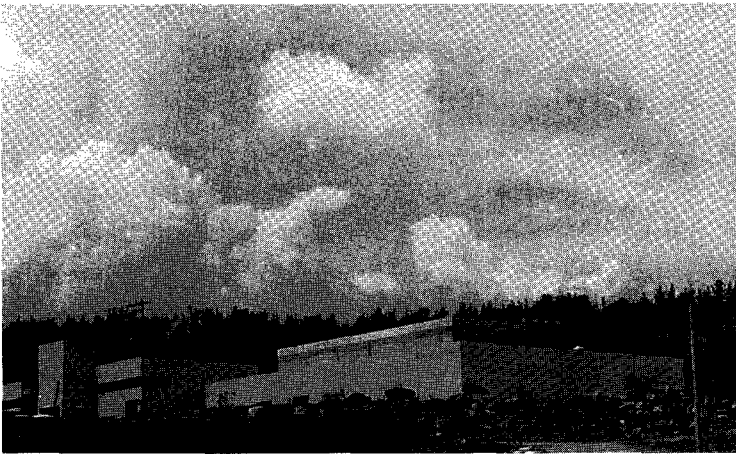


노계육, 자원화 노력에 역점둔다.



△노계처리에 일대 혁신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풀그린 식품(주) 전경

노계가 닭고기 공급의 전부가 되었던 때도 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토종 닭에 대한 매력이 무척 높아 서인지 현재는 산란계의 전부가 갈색계로 바뀌었는데는 유통상의 원인도 있겠지만 소비자들이 백색계에서 생산된 백색난 보다는 갈색난을 선호하면서 시장 판도가 일시에 갈

색계로 탈바꿈 되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노계는 모내기 철이나 지방에서 닭고기로 사용이 되었으나 이제는 처리과정의 어려움, 생계유통의 단속, 수집의 어려움 등으로 대부분 전량 정육으로 처리되어 육가공 원료육으로 사용이 되고 있으나 이마저 계절적으로 공급이 편중되어 있

어 계정육업자들을 어렵게 하자 가격과 원료육 조달이 용이로운 칠면조육을 위시한 수입가금육으로 대체되기 시작하면서 금년 상반기초에는 노계값이 형성되지 않는 사례까지 빚었다.

실로 채란업자나 종계업자에게는 심한 타격이 아닐 수가 없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인건비가 상승하였고, 무창계사가 많이 보급되면서 노계는 렌더링화 하여 사료부산물이나, 비료원료로 사용되거나 산업폐기물로까지 수모를 당하는 사태를 맞고 있다는 현실을 감안하고 부터 좀더 노계처리를 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집약되어 정부에서도 노계처리 전용도계장을 지원하게 되면서 이 부분이 활성화되기 시작 했다고 보여진다.

폴그린식품은 현재 이 같은 점을 해결하기 위해 '91년 충남 천안군에 총 부지 1만평을 구입하여 1,300평의 건평에 1일 처리능력 6만수급 노계전문도계장을 건립하기에 이르렀다. 폴그린식품의 대표이사인 지덕호씨는 '69년 천안(독립기념관 자리)군에서 채란양계업을 시작하여 양계업과 인연을 맺게 되었는데 이천으로 자리를 옮겨 육용종계를 시작하여, 아산농장과 함께 5만수 정도의 종계를 보유하고 있기도 하다.

1차로 3만수 라인을 완공할 예정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2차 사업으로 모든 부대시설이 완공되면 6만수급으로 가동이 되는데 가공공장까지 갖추어져 노계육처리에 만전을 기하게 된다.

도계기는 화란의 씨스템메이트사의 노계전문라인을 설비하였고, 폐기물은 일본 사쿠마사에서 제작한 기종을 이용우모분 7톤, 육골분 11톤을 1일 처리하여 부산물로 사용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노계육의 원료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40만수급 비축능력을 갖춘 냉동창고 100평을 설비하여 품질고급화에 가장 큰

관심을 쏟고 있다.

이 시설이 본격 가동되면 연간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3천만수 정도의 노계를 육가공 원료육으로 재활용 시키는데 기폭제의 역할을 하여 가금육의 수입을 줄여 외화낭비도 막고,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국가경제에 기여할 뿐 아니라, 노계의 원활한 처리로 인하여 계란생산을 조절하고 소득을 보장한다는 측면도 고려하여 사업을 펼쳐나가고 있다.

사익 보다는 공익을 우선한다는 것이 폴그린식품의 경영방침인데 가공공장이 완공되면 원료육으로의 단순한 공급보다는 부가가치가 높은 스모그 치킨, 치킨버거, 햄, 소시지, 치킨가스 등을 생산할 예정이다.

또한 노계도래시 양계 농가가 애로를 겪고 있는 일시출하, 차량소독, 농장소독까지 용역팀을 구성하여 기동성도 갖춘다는 것이 차기의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폴그린식품을 탄생시킨 지덕호사장은 자기 앞으로 된 변변한 승용차 한대가 없을 정도이다. 그만큼 양계업계에 남을만한 사업 한가지에 몰두해 있는데 양계인들의 도움

없이 성공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노계에 대한 개념부터 새로운 인식으로 바라보고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말로만 듣던 국제경쟁력이 무엇인가를 이번 사업을 하면 서부터 알게 되었다고 강조하는 말에서부터 노계전문도계장에 거는 기대를 읽을 수 있었다.

수입개방이 전 품목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노계의 운명은 이제 높은출하 가격에만 집착할 때가 지나가고 있다는 느낌이다. 채란인들도 국내 노계값을 수입가금육과 경쟁력이 있는 선을 계산해야 할 것이고, 노계육을 육가공 원료육으로 재활용시키고자 하는 업체들도 품질고급화나 신제품개발에 주력해 나가야 하리라고 보여진다.

국제화시대는 끊임없는 경쟁의 시대이므로 어느 한쪽의 자신감만으로는 목적이 성취될 수 없다. 서로의 이익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장기적인 안목일 것이다. 노계육을 자원화하는 노력이 곧 산란계 경영에 보다 큰 이익이 된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用)